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파견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Brownsville	파견기간	2014년 8월 ~ 2015년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제가 파견되었던 UTB는 시골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에 마트나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 정도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멕시코와 가깝다 보니 히스패닉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규모는 보통이며, 시설도 깔끔해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Jogging- 한 시간 동안 조깅을 하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 아침 수업으로 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는 없고 기말고사만 봤습니다.</p> <p>Interpersonal Communication- 신입생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중간, 기말고사가 있고 한 번의 분량이 긴 에세이 과제가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종종 발표를 할 때가 있지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고 교수님이 워낙 좋으셔서 추천하는 과목입니다.</p> <p>Composition 1- 4번의 에세이 과제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에세이 과제가 많아 벽찰 수도 있는 수업이지만, 영작문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수업이므로 추천합니다.</p> <p>Macroeconomics- 교수님에 따라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과목입니다. 수업 내용은 약간 어려운 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p>

	<p>관찰을 거라 생각합니다.</p> <p>Supply Chain Management-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10분간 작성하는 짧은 에세이 퀴즈가 있었고, 세 번의 시험과 한 번의 기말고사가 있었던 과목입니다.</p>
2015-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English Grammar- 한국에서 이미 배웠던 문법을 다루는 과목이라 어렵진 않았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색달랐습니다. 세 번의 시험과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추천합니다.</p> <p>Composition 2- Composition1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평가 방식을 거의 동일합니다.</p> <p>Music Appreciation- 시대에 따라서 음악이론을 배우고 음악을 듣기도 하는 수업입니다. 네 번 정도의 시험과 두 번의 듣기평가가 있습니다.</p> <p>Introduction to Sociology- 다양한 사회이론을 배우는 사회학의 기초이론으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 준 과목이었고, 교수님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총 네 번이었고,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잘 공부한다면 무난하게</p> <p>Business Law-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챕터 당 과제 수가 2개 정도 되었는데 30개 정도의 챕터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8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Global engagement office에서 교환학생을 비롯한 국제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주로 주최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에도 찾아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거의 1년 내내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12월과 1월을 제외하면 여름날씨이지만, 가끔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올 때가 있어 두툼한 자켓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텍사스 주의 브라운스빌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치안에 관해 많이 걱정했지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체류기간 동안 한 번 유아 납치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국경 근처가 위험하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 기숙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4개의 방이 하나의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식이었고, 각 방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새 건물이라 시설도 깔끔하고 방도 넓어서 기숙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국제학생끼리 주로 같은 방에 배정되어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었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 기숙사 거실에 부엌이 함께 붙어있는 구조라서 주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친구들과 함께 외식하였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통학은 주로 걸어서 하거나 가끔 스쿨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내교통은 잘 되어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을 보거나 외부로 나갈 때에는 주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1500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0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교환학생의 경우 특별히 내야 하는 Fee는 없었습니다.</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구매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구매한 보험도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보험과 가격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저렴했던 기억이 납니다.</p>	
숙소	학기 당 2100불 + deposit 200불	
식비	매달 300 ~ 500불 정도	
교통비		
책값	150불 정도	
기타1		
기타2		
합계	15,000불 정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교환학생에 파견되기 전 가장 공들여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어실력입니다. 이미 토플을 준비하는 동안 영어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합격하신 후 나태한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만큼 교환학생 생활은 더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학교가 확정되면, 먼저 다녀 온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는 게 좋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먼저 다녀온 선배를 엄청 귀찮게 했었는데, 선배가 친절하게 알려준 것들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기 전에는 많이 설레고 들떠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 혼자서 하나하나 짐을 풀고 생필품들을 채워 넣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설레면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맘으로 잠을 청하던 그 때가 지금은 정말 그립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교환학생 생활이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속상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힘든 시간들에 비해 즐겁고 신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1년 후에 모두들 본인만의 멋진 경험을 갖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다시 한 번 미국을 나가고 싶어 방학 동안 인턴을 하면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나가게 된다면 제 힘으로 나가야 하니 얼른 취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1년 보내고 오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들과 동물원에서



친구들과 San Antonio 여행 중에



친구들과 영화를 본 후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학교 할로윈 이벤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친구들과 마지막 바다여행!